

빨라지는 통합 시계… 민주당, 행정통합 특위 구성

이 대통령, 광주·전남 행정통합 전폭 지원 약속

16일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내달 본회의 통과 목표
시·도의회 의결로 가다…27개 시·군·구 순회 설명회도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통합 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 제정과 공론화 절차를 병행하며 통합 일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나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재정과 공공 기관 이전, 산업 지원과 각종 특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지원 의지가 확인되면서 양 시·도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광주·전남은 지

난 5일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통합지방정부 출범 전까지 운영되며 통합 방향과 특별법에 담길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진협의체는 전남 경제부지사와 광주 문화경제부지사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시장·군수협의회와 시·도의회, 경제계, 교육계, 시민단체, 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의견을 정리해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에는 광주·전남 기관 등 300~400명 규모의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도 출범할 예정이다.

이 기구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여론을 모으는 데 주력한다.

행정통합의 핵심인 특별법 제정도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고 있다. 광주·전남 국회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통합 지원을 위한 당내 특위 구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도로 통합 지원 특례 내용을 마련해 15일쯤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15일 공청회를 열어 광주·전남 통합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17일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이뤄지고, 법제 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초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이 거론된다. 목표대로라면 특별법은 늦어도 2월 말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에는 통합 지자체에 대한 재정·

행정 권한 확대와 함께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대형 사업 추진에 필요 한 특례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 이후 재정 규모가 커지고, 광역 행정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유치 구상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통합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경우 일부 공공기관을 광주 전남 핵심도시로 옮기는 방침이다. 통합 속도가 빨라진 만큼, 지역사회 공감대를 얼마나 넓힐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한병도 의원(가운데)이 정청래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 새 원내대표에 전북 3선 한병도 선출

임기 5월까지 3개월…결선투표서 백혜련 놀라

새 최고위원에 강득구·이성윤·문정복 3명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이 11일 선출됐다.

강득구(재선)·이성윤(초선)·문정복(재선) 의원은 새 최고위원에 뽑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1차 투표(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를 치른 결과 한병도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결선투표에서 백혜련 의원(3선·경기 수원을)을 누르고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진성준(3선·서울 강서을) 의원과 박정(3선·경기 파주을) 의원은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신임 한 원내대표 임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5월까지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에 앞선 정경

발표에서 “다가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이후에도 전광석화처럼 민생 개혁 법안을 밀어붙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단단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정청 내부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경은 최소화하고, 합의된 결론이 발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의원은 이날 권리당원 투표 50%, 중앙위원 50% 투표를 합산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선거 결과 강득구 의원이 최종 득표율 30.74%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이어 이

성윤 의원이 24.72%, 문정복 의원이 23.95%의 득표율로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이건태 의원은 최종 득표율 20.59%로 4위로 밀려나 탈락했다.

당권파 대 비당권파 대결로 주목받은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비당권파(강득구)보다 정청래 대표 축 인사(이성윤·문정복)가 더 많이 지도부에 편입되면서 ‘정청래 체제’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결과 발표에 앞선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 참석해 후보자들을 한 명씩 소개하면서 “오늘만큼은 내년 내년까지 맡고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새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올해 8월까지다. 이들은 앞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최고위원 3명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이성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채상병 사건 외압 저항’
박정훈 대령, 준장 진급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외압에 저항했던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박 대령의 준장 진급을 포함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발표했다.

박준장은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보직 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육군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준장 박성순, 공군준장 김용재 등 6명 등 총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한다.

또 육군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대령 김태현 등 11명 등 총 77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 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구형 내일 재개

결심공판 15시간 만에 종료…재판부 “다음엔 무조건 마무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13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위연부

의사관)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관련 8명에 대한 결심 재판 절차를 진행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며 자정을 넘기자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

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수사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총사 혐

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영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서증조사 및 최종변론, 특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재판을 마치고 선고일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증조사 첫 순서로 나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점심과 휴憩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30분 가까운 시간을 쓰면서 재판 진도가 나아가질 않았다.

재판부는 오후 5시 40분께 김 전 장관 변

호인단의 변론을 중단시키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경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를 재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3차전군(3군) 사령부 현병대장(대령) 측 서증조사를 마치고 재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10일 0시 11분께 공판을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변론,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한 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은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진행하기로 했다.

13일 추가 지정된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에 이어 특검팀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호인단의 변론을 중단시키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경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를 재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3차전군(3군) 사령부 현병대장(대령) 측 서증조사를 마치고 재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10일 0시 11분께 공판을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변론,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한 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은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진행하기로 했다.

13일 추가 지정된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에 이어 특검팀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치동물원은

‘판다 외교’로 떠오른 광주 우치동물원 강기정 시장, 입식 환경 등 직접 살폈다



한국 정상화 회의 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나리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리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할 예정이다. 취임 후 다섯 번째 일자, 이 시바 시계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방일 이를 차인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친교 행사,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본사 인사

△이훈기 신사 (목포·무안·신안지역 기자)

△송원근 신사 (여수지역 기자)

△조합천 신사 (나주지역 기자)

2026년 1월 12일자